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문 지 원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

지도 교수 유 명 순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문 지 원

문지원의 석사 학위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김선영 (인)

부위원장 _____ 김홍수 (인)

위 원 _____ 유명순 (인)

초 록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이로 인한 감염의 지역사회 대유행인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높은 불안을 느끼고 통제력을 얻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동시에 감염에 대한 정보는 급속히 증가하며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된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문헌에서는 후자의 상황을 ‘정보 범람(flood of information)’으로 비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정보 탐색은 충분히 사실관계 등을 점검하지 못하고 정보에 노출되거나, 수용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혐오표현’에 주목한다. 혐오표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과 관련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근거로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말, 문서 또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의미하며,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중 혐오표현은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촉발된 인지 및 심리적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컸으나 이를 보건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핀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라는 개념이 아닌, 통용어로 사용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거주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획득 미디어, 미디어 이용 정도 등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통제변수로 적용하고,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20년 5월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5차 국민인식조사』(유명순 외, 2020)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전체 집단에서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에 대한 경험은 연령, 거주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정보 획득 미디어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코로나19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경험 여부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 변수와 심리 변수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에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에서는 이를 찾기 어려웠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혐오표현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염 가능성은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세 가지 모두에서 혐오표현 노출과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감염 심각성만 혐오표현 노출과 유의미하였다($\beta=0.053$). 감염 가능성은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감염 가능성이 낮았고($\beta=-0.122$),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beta=0.125$). 감염 심각성은 연령이 많을수록($\beta=0.019$),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beta=0.026$),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beta=0.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일 경우 무직일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28$). 또한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 감염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29$).

넷째, 코로나19 혐오표현이 개인의 감염 위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염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은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 두려움이 높고($\beta=0.081$), 낙인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73$). 감염 두려움은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0.068$),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beta=0.065$). 또한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으면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82$).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는 미디어 이용 정도로,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 낙인 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66$).

다섯째, 연령 집단을 총 3개로 20대와 30대 청년층(이하 2030대 청년층),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하 4050대 중장년층),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이하 607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혐오표현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4050대 중년층과 6070대 이상 노년층은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2030대 청년층에서 코로나19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 위험 인지 변수 중 감염 심각성($\beta=0.14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연령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 중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감염 심각성($\beta=0.184$), 감염 두려움($\beta=0.181$), 낙인 두려움($\beta=0.19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beta=-0.171$), 근로자일 경우 무직보다 감염 심각성이 낮았다($\beta=-0.114$). 또한 2030대 청년층은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감염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33$).

4050대 중장년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감염가능성이 낮았고($\beta=-0.154$), 근로자일 때 무직보다 감염 심각성이 낮았다($\beta=-0.123$). 반면 정보를 뉴미디어에서 획득할 경우 매스미디어에서 획득하는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이 높았다($\beta=0.136$). 이들은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beta=0.152$)과 감염 두려움($\beta=0.137$)은 증가하지만, 감염 심각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1$). 또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감염 두려움이 높았고($\beta=0.116$), 미디어 이용을 많이할수록 감염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beta=0.111$). 한편, 6070대 이상 노년층은 무직일 경우보다 근로자일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66$).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통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탐색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감염 심각성,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위험 인식과 심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행동 촉진과 방역의 자발적인 참여 측면에서 중요하다.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적 및 심리적 영향을 확인하고, 지나친 감정축발을 예방하는 적절한 대응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 집단별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표현과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 영향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인구집단에 천편일률적으로 소통을 하기보다, 감염병 위기 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의 차원에서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감염 위험에 인지적 및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 전략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위기발생 시 촉발될 수 있는 개인의 인지 및 심리의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한 세부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보이용행태 변수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위기 소통 시 감염 위험 인식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과하게 촉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혐오표현 노출, 감염 위험 인지, 감염 위험 심리, 위계적 회귀분석, 연령별 집단분석, 코로나19
학 번 : 2021-22430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3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혐오표현.....	4
제 2 절	혐오표현 노출의 영향.....	7
제 3 절	코로나19 팬데믹의 혐오표현 노출.....	10
제 3 장	연구 방법.....	12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설계.....	12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4
제 4 장	연구 결과.....	21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21
제 2 절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변수 특성.....	25
제 3 절	위계적 회귀분석.....	28
제 4 절	연령별 하위집단 분석.....	38
제 5 장	결론 및 논의.....	4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47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52
제 3 절	결론 및 제언.....	53
	참고문헌.....	56
	Abstract.....	67

표 목차

<표 1> 연구의 전체 변수 구성	18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24
<표 4> 카이제곱검정 결과.....	25
<표 5>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	27
<표 6> 감염 가능성 위계적 회귀분석	29
<표 7> 감염 심각성 위계적 회귀분석	32
<표 8> 감염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35
<표 9> 낙인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37
<표 10> 연령별 감염 가능성 위계적 회귀분석	41
<표 11> 연령별 감염 심각성 위계적 회귀분석	42
<표 12> 연령별 감염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45
<표 13> 연령별 낙인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4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13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위험 인식은 높게 나타나며(Gerhold, 2020; Dryhurst et al., 2020), 이들은 상황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Brown et al., 2021; Chisty et al., 2021; Teo et al., 2018).

감염병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미디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급속히 전달한다(Coombs, 2010).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위기 상황의 특성상 정부 당국 외에도 전문가, 시민 등 여러 정보원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Zhang et al., 2020; Hyland-Wood et al., 2021).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거나 진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정보 등이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전달되어 정보 오인 및 오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Bridgman et al., 2020; Bavel et al., 2020; Brennen et al., 2020).

혐오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 혐오에 대한 개념은 분야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적 의견과 신념, 그것에서 이어지는 사회적 배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혐오표현은 이러한 혐오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의미한다(UN, 2019; 국가인권위원회, 2020).

혐오표현은 사회적 맥락에서 본인이나 본인이 속해있는 집단이 위협을 느끼거나 간섭할 때 발생하며(Staub, 2005), 대상에 대해 ‘싫어함’을 넘어 ‘위협적이고 위협한 대상에 대한 적의’를 일으킨다(Navarrete & Fessler, 2006).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관적 불안이 높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정보 전달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퍼진다(Rozin & Fallon, 1987).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예외 없이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서

혐오표현이 증가하였으며(Fernandez, 2020; Pasupa et al., 2022),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이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어 혐오와 차별, 배척의 정서가 확산하였다(Roberto, et al., 2020; Croucher et al., 2020; Fan, et al., 2020; Stechemesser & Levermann, 2020). 특히 혐오표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2월과 5월에 실시된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이라고 느낀 정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58.2%, 5월 51.6%)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2020).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 혐오의 당사자가 겪은 인지 및 심리적 피해와 영향 요인을 밝혀냈지만(Gover et al., 2020; He et al., 2021; Fan et al., 2020),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Kim et al., 2022; He et al., 2021; Uyheng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해당하는 2020년 5월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연령을 청년층(2030대), 중장년층(4050대), 노년층(60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이러한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감염 위험 인지를 감염에 대한 심각성과 가능성으로 나누었고, 감염 위험 심리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정보이용형태 특성(정보획득미디어, 미디어이용 정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감염 위험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중의 높은 위험 인식과 두려움 등 재난 심리를 고려한 위기 소통 전개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혐오표현

1. 혐오표현의 정의와 실태

혐오표현(hate speech)은 국제인권법상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연구 분야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혐오스러운(hateful)’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과 관련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근거로 (예: 종교, 종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 또는 기타 정체성 요소(identity factor))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말, 문서 또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이라고 정의하였다(UN, 2019).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genocide), 폭력, 적의, 차별적 선동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며, 미국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의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지칭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한국사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및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즉, 혐오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특정하며 이를 근거로 공격 및 차별,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표현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혐오표현은 크게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고통을 주는 ‘차별적 괴롭힘’, 차별 및 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편견 조장’, 공개적으로 소수자를 멸시 혹은 위협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 등을 조장 및 선동하는 ‘중요 선동’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홍성수, 2018; 국가인권위원회, 2016).

혐오표현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혐오를 접한 국민은 64%로 나타났으며, 혐오표현의 종류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 여성, 여성주의자,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

2.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의 노출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은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도 혐오표현은 존재하였지만, 1995년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혐오표현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으며(Oksanen et al., 2014), 혐오표현이 주로 전달되는 수단으로는 인터넷 및 SNS, 집회 및 시위, 현수막 및 대자보, 광고,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한다(박미숙 & 추지현, 2017).

이때 미디어는 미디어의 유형은 크게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TV, 라디오, 종이신문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며, 뉴미디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이 등장한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등이 해당한다(Lister, 2009). 즉 혐오표현은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두 미디어 유형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는 개인의 인지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 정도와 활용 미디어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Biddle & Mutrie, 2007). 선행연구들로부터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혐오표현이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와 심리,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적 신뢰가 높은 뉴스 등 매스미디어는 혐오와 관련한 현실을 재구성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수&윤석민, 2019; 김현&손병우, 2020). 일례로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혐오 및 증오 콘텐츠가 폭력과 심리적 불안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te& Ibrahim, 2020; Somerville, 2011; Noriega & Iribarren, 2012), 신문이 특정 국가에 대한 낙인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Merklejn & Wiślicki, 2020).

뉴미디어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익명성을 가진 상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혐오는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agliardone et al., 2015; Castaño-Pulgarín et al.,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공격적인 언어를 간접적으로 접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미영, 2008),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촉발된 혐오표현이 점차적으로 오프라인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소연, 류용재, 2017; 정인경, 2016). 또한 SNS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turoiu et al, 2020; Kim et al., 2022).

제 2 절 혐오표현 노출의 영향

1. 혐오표현 노출과 인지적 영향

혐오표현의 대상자(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받을 수 있어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 계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김민정, 2014). 또한 공적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유로운 표현행위가 상대적으로 억제된다(박해영, 2015; 이승현, 2016).

혐오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혐오표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혐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가치판단이 행동과 태도로 이어져 혐오 대상 집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편견을 갖게 된다(Soral, et al., 2018). 즉 혐오표현이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유발하거나 공고히 한다 (김수아, 2015; 이수연 외, 2019; 정다영, 2018 등).

혐오표현과 관련 있는 인지적 영향으로 감염 위험 인식을 들 수 있다. 위험(risk)이란, 어떤 상황에서 위해(hazard)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Adams, 1999), 개인의 수준에서 위험 인식은 개인의 태도와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Leiserowitz, 2006), 위험을 형성하는 통제 가능성 등의 요인이 혐오감과도 관련이 있다(Slovic, 1987).

개인에게 있어 혐오감을 신체의 잠재적인 위험이나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보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Murray and Schaller, 2016; Oaten, Stevenson, and Case, 2009; Rozin and Fallon, 1980), 이때 새로운 위험은 일반적으로 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혐오감을 더욱 촉발하게 만든다(Karg et al., 20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렌과 동료들(Allen et al., 2011)은 혐오표현과 같은 폭력적 메시지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이 이용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까지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력적인

메시지가 부정적 행동에 대한 주요 환경적 선행 요인 중 하나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혐오표현 노출과 심리적 영향

혐오표현은 대상에 대한 증오나 분노,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한다(이주영, 2015). 리츠(Leets, 2002)는 미디어를 통해 혐오표현에 노출된 사람은 단기적 관점에서 분노, 외로움,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먼저 겪게 되고, 이러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지속되어,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 노출이 이용자의 가치판단과 사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파체코와 멜휘스(Pacheco & Melhuish, 2018)의 연구에서도 혐오표현의 콘텐츠는 분노, 불안, 슬픔, 굴욕감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뉴스 기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ller, A., & Leshner, G, 2007), 혐오표현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사회적 공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stello, 2018; Oksanen et al., 2018).

혐오표현 노출은 낙인(stigma)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낙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게 부여된 언어적 표식(labeling)으로, 이를 부여받은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잃은 채, 폄하와 차별의 대상으로 공식화된다(Goffman, 1963; Link & Phelan, 2001). 셰프(Scheff, 1966)의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에 따르면, 낙인화 대상을 일컫는 특정 표식에는 그 대상을 향한 고정관념이 내재하여 있으며, 특정 표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향한 거부감이 자극될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 노출은 동조의 심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혐오표현(표식)에 노출되면 실제 혐오표현의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조성하는 사회적 낙인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혐오표현 노출의 영향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 경험의 강도는 남성보다 여성과 이민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vimäki et al., 2020).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 노출을 접했을 때 더 강한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코로나19 팬데믹의 혐오표현 노출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표현과 차별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xenophobia) 등 사회적 현상이 심화하였으며(Gover et al., 2020; Vachuska, 2020), 특정 국가 혹은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SUSD, 2021).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취약 집단으로는 특정 국적 및 인종,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 등이었으며, 이들 집단은 차별과 낙인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불면, 두통 등 신체적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Gover et al., 2020; He et al., 2021; Fan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집단이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도 발생하였다(Adams, 2020; Choi, 2021; Orellana, 2023).

특히 코로나19 혐오표현은 감염병 발생 초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SNS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을 가지고 혐오표현 예측 모델을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정의 촉발과 함께 혐오표현이 출현하였으며, 혐오표현은 감염병 발생 후 약 일주일 내에 등장하여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u et al., 2022).

코로나19 혐오표현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정부 관계자의 연설 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양상을 보인다(Ziems et al., 2020; Agwuocha et al., 2021).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TV, 종이신문 등 매스미디어보다 SNS 등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혐오표현에 더 많이 노출되며(Stevenson et al., 2021; Jones et al., 2021; 표시영 & 정지영, 2021), 미디어 노출의 증가는 모두 불안, 두려움, 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hagen, 1998; Kim et al., 2020; Mohammadi et al., 2020; Garfin et al., 2022).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도 중 질병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귀속시키는 책임 귀인 프레임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책임 귀인에 혐오 조장 표현이 결합되어 언론 이용자들의 문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받은바 있다(박주현, 2020; 표시영, 2020).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원인을 귀인 하는 책임 귀인 프레임의 경우 보수적 성향의 신문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에 책임을 묻는 보도를 많이 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신문은 개인과 특정 종교 등 종교, 단체, 집단시설에 책임을 묻는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현, 2020). 또한 뉴스 제목에서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명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 신종바이러스를 특정 국가나 지역명과 함께 사용하여 질병 자체를 타자화하거나 감염 환자의 감염 경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배척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달임, 2020). 즉 미디어가 혐오적인 시선을 촉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표현의 종류와 혐오 대상집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미디어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표현에 노출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설계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연령을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하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은 개인의 감염 위험 가능성, 감염 위험 심각성 등 감염 위험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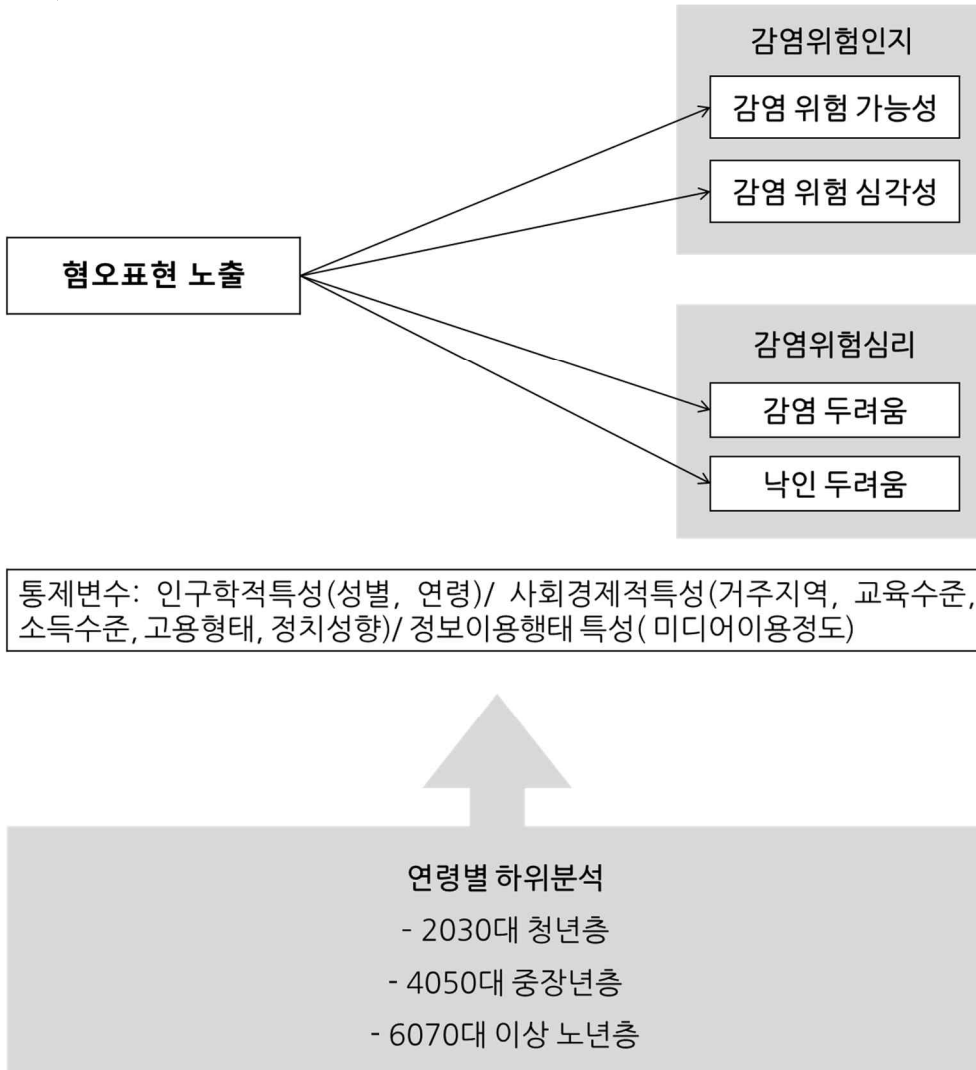
연구 문제 2.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은 개인의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 등 감염 위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과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는 연령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와 감염 위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개요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2020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수집한 『코로나19 5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¹. 조사는 전문여론기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IRB No. 2003/002-005), 본 연구는 해당 2차 자료 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인 유명순 교수의 승인을 받았으며, 전달받은 익명화된 자료 활용에 대한 연구윤리 재심의를 거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IRB No. E2305/001-001).

2.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혐오표현 노출

혐오표현 노출은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여부로 정의하였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해서 혐오표현이나 발언을 듣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경험 있음(1)’과 ‘경험 없음(0)’으로 측정하였다.

2.2 감염 위험 인지

감염 위험 인지는 코로나19 감염 개인의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을 묻는 두 가지 문항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 등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1: 매우 낮다 ~ 5: 매우 높다)로 측정되었다.

2.3 감염 두려움 심리

¹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로나19 5차 국민인식조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감염 두려움 심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개인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진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을 묻는 두 가지 문항으로 ‘내가 확진환자가 될까봐 두렵다’와 ‘내가 확진환자가 될 경우 그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두렵다’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리커트(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4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 사용한 문항은 성별, 연령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0)과 여성(1)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으며, 연령은 직접 만 연령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후, 5점 척도(1: 20대 - 5: 60대 이상)로 재분류하였다.

2.5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등 총 5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1)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총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로 구분하여 설문하였으며, 이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으로 재분류하였다.

(2)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6가지 척도(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재학 중, 4: 대학 졸업, 5: 대학원 재학 중, 6: 대학원 졸업)로 측정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 이하(0)과 대학교 재학 이상(1)로 재분류하였다.

(3)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은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11점 척도 (1: 100만원 미만 - 11: 2천만원 이상)로 측정하였다. 이후 200 만원 미만(1), 200 만원 이상~400 만원 미만(2),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3), 600만원 이상 (4)로 재분류하였다.

(4) 고용형태

고용형태는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농림어업 종사자(1), 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 등 자영업자(2), 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판매/영업/서비스직 (3), 운전자, 선반, 목공 등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 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등 사무직(5), 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경영 관리직(6), 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전문직(7), 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하는 전업주부(8), 일하지 않고 학업 중인 학생 (9), 다른 직업(10), 무직, 퇴직, 은퇴 (11) 등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하는 전업주부(8)’, ‘일하지 않고 학업 중인 학생 (9)’, ‘무직, 퇴직, 은퇴 (11)’ 세 답변을 무직(0)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응답을 ‘근로자(1)’로 재분류하였다.

(5)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은 ‘이념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12점 척도(0: 매우 진보 - 10: 매우 보수, 99: 모르겠다)를 활용하였다. 모르겠다(99)라는 응답은 분석 시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2.6 정보이용행태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은 정보 획득 미디어와 미디어 이용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보 획득 미디어는 ‘다음 중 어디에서 코로나19 정보를 가장 많이 얻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등), 인터넷 검색 포털, SNS 플랫폼(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카카오톡 등), 동영상 기반 플랫폼(유튜브 등), 언론사 웹사이트, 종이신문 등 총 7가지 미디어로 측정하였다. 이후 선행연구들의 미디어 구분에 따라 매스미디어(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 종이신문)와 뉴미디어(인터넷 검색 포털, SNS 플랫폼, 동영상 기반 플랫폼, 언론사

웹사이트)로 구분하였다.

미디어이용 정도는 ‘평소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Likert) 척도(1: 매우 자주 이용함 - 5: 전혀 이용하지 않음)로 측정되었다. 분석 시 해당 변수의 결과는 역으로 재코딩하였다.

<표 1> 연구의 전체 변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문항(문항 수)	척도
혈오표현 노출	혈오표현을 접한 경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19 관련해서 혈오 표현이나 발언을 듣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1 문항)	0 : 경험 없음 1 : 경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문항)	5점 척도 (1: 가능성이 매우 낮다 - 5: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염 위험 인지	감염 가능성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 등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 (1 문항)	5점 척도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매우 심각하다)
	감염 심각성	내가 확진환자가 될까봐 두렵다 (1 문항)	5 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감염 두려움 심리	감염 두려움	내가 확진환자가 될 경우 그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 (1 문항)	5 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낙인 두려움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문항)	0 : 남성 1 : 여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문항)	5점 (1: 20대 - 5점: 60대 이상)
	연령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시도)(1 문항)	0 : 비수도권 1 : 수도권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문항)	0 :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수준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1 문항)	11점 (1: 100만원 미만 - 11: 2천만원 이상)
	소득 수준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문항)	0 : 무직 1: 근로자
	고용형태	이념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문항)	12 점 (0: 매우 진보-10: 매우 보수, 99: 모르겠다) *99: 모르겠다는 결측치 처리
	정치 성향		

정보이용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다음 중 어디에서 코로나 19 정보를 가장 많이 얻으십니까? (1 문항)	0 : 매스미디어 (TV 라디오/ 종이신문) 1 : 뉴미디어 (인터넷 검색 포털/ SNS 플랫폼/ 동영상기반 플랫폼/ 언론사 웹사이트)
	미디어 이용 정도	평소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1 문항)	5 점 척도 (1: 매우 자주 이용함 - 5: 전혀 이용하지 않음)

3. 통계적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R 4.2.3의 통계 패키지와 IBM SPSS Statistics ver. 29.0(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고, 모두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사용한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 변수 간 상관관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 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들과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 변수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및 t-test를 시행하였다.
- 4) 통제변수의 종류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 노출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모델을 사용하였다.

Model 1: 통제변수 사용하지 않음

Model 2: 통제변수로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 사용

Model 3: 통제변수로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 사용

- 5) 연령 집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 노출 및 통제변수가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위군 분석을 시행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전체 총 1,000명 중 남성 48.6%, 여성 51.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27.3%로 가장 많았고, 50대 20.4%, 40대 19.3%, 20대 16.8%, 30대 16.2%로 순서로 나타났다.

거주지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수도권 49.9%, 비수도권 50.1%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3.0%, 대학교 재학 이상은 57.0%였다. 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24.5%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600만원 이상 20.7%,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8.4%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는 근로자가 60.9%, 무직이 39.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은 진보 45.5%, 중도 44.9%, 보수 3.4%, 모르겠음 6.2%로 나타났다.

정보 획득 미디어의 경우, 매스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은 44.4%, 뉴미디어는 55.6%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정도의 평균은 3.65점, 표준편차는 0.87로 나타났다.

감염 위험 인지 중 감염 심각성은 평균 2.64, 표준편차 0.77로 나타났고, 감염 가능성은 평균 3.84, 표준편차 0.81이었다. 감염 위험 심리 중 감염 두려움은 평균 3.46, 표준편차 0.99, 낙인 두려움은 평균 3.51, 표준편차 1.08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여부의 비율은 엇비슷하였는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1.6%,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8.4%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N = 1000)		
변수	N(%)	Mean(SD)
성별		
남성	486 (48.6%)	
여성	514 (51.4%)	
연령		
20대	168 (16.8%)	
30대	162 (16.2%)	
40대	193 (19.3%)	
50대	204 (20.4%)	
60대 이상	273 (27.3%)	
거주지		
수도권	499 (49.9%)	
비수도권	501 (50.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0 (43.0%)	
대학교 재학 이상	570 (57.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84 (18.4%)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64 (36.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5 (24.5%)	
600만원 이상	207 (20.7%)	
고용형태		
무직	391 (39.1%)	
근로자	609 (60.9%)	

정치 성향	
진보	350(45.5%)
중도	346(44.9%)
보수	256(3.4%)
모르겠음	48(6.2%)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444(44.4%)
뉴미디어	556(55.6%)
미디어 이용 정도	
	3.65(0.87)
혐오표현 노출	
경험 있음	516(51.6%)
경험 없음	484(48.4%)
감염 위험 인지	
감염 가능성	2.64(0.77)
감염 심각성	3.84(0.81)
감염 위험 심리	
감염 두려움	3.46(0.99)
낙인 두려움	3.51(1.08)

* 연속형 변수의 경우 Mean(SD)로 표기함

2.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 중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과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염 위험 인지 변수 중 감염 가능성은 감염 심각성,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심각성은 감염 가능성,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위험 심리 변수 중 감염 두려움은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 낙인 두려움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낙인 두려움 또한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 감염 두려움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변수 간 상관계수가 0.8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상관계수는 0.8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
감염 가능성	1			
감염 심각성	0.255***	1		
감염 두려움	0.460***	0.311***	1	
낙인 두려움	0.275***	0.198***	0.538***	1

*p<.05, **p<.01, ***p<.001

제 2 절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변수 특성

1. 혐오표현에 따른 인구학적·사회학적·정보이용행태 특성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정보이용행태 특성(정보 획득 미디어, 미디어 이용 정도)세 군의 변수와 혐오표현 노출에 차이가 있는지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변수 중 미디어이용 정도는 평균점수(3.64점)을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의 이변량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혐오표현 노출 경험은 연령($p < 0.001$), 거주지($p < 0.05$), 교육 수준($p < 0.001$), 소득 수준($p < 0.05$), 고용형태($p < 0.05$), 정치 성향($p < 0.01$), 정보 획득 미디어($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카이제곱검정 결과

구분	혐오표현 노출 경험 있음	혐오표현 노출 경험 없음	p-value
N	516	484	
성별			
남성	252(51.9%)	234(48.1%)	.877
여성	264(51.4%)	250(48.6%)	
연령			
20대	118(70.2%)	50(29.8%)	<.001***
30대	92(56.8%)	70(43.2%)	
40대	100(51.8%)	93(48.2%)	
50대	84(41.2%)	120(58.8%)	
60대 이상	122(44.7%)	151(55.3%)	
거주지			
수도권	276(55.3%)	223(44.7%)	.019*
비수도권	240(47.9%)	261(52.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5(45.3%)	235(54.7%)	<.001***
대학교 재학 이상	321(56.3%)	249(43.7%)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4 (45.7%)	100 (54.3%)	.043*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88 (51.6%)	176 (48.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21 (49.4%)	124 (50.6%)	
600만원 이상	123 (59.4%)	84 (40.6%)	
고용형태			
무직	219 (56.0%)	172 (44.0%)	.025*
근로자	297 (48.8%)	312 (51.2%)	
정치 성향			
진보	205 (59%)	145 (41%)	.002**
중도	171 (49%)	175 (51%)	
보수	115 (45%)	141 (55%)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198 (44.6%)	246 (55.4%)	<.001***
뉴미디어	318 (57.2%)	238 (42.8%)	
미디어이용 정도 (평균: 3.64)			
낮음	210 (21.0%)	211 (21.1%)	.354
높음	306 (30.6%)	273 (27.3%)	

*p<.05, **p<.01, ***p<.001

2.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 변수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 등 감염 위험 인지와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 등 감염 위험 심리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감염 위험 인지인 감염 가능성($t=-0.354$, $p=0.724$)과 감염 심각성($t=-1.210$, $p=0.227$)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감염 위험 심리인 감염 두려움($t=-2.449$, $p=0.014$)과 낙인 두려움($t=-2.238$, $p=0.025$)은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

구분		혐오표현 노출 경험 있음	혐오표현 노출 경험 없음	p-value
N		516	484	
감염 위험 인지	감염 가능성	2.65±0.796	2.63±0.744	0.724
	감염 심각성	3.87±0.840	3.81±0.781	0.227
감염 위험 심리	감염 두려움	3.54±1.011	3.38±0.955	0.014*
	낙인 두려움	3.58±1.111	3.43±1.056	0.025*

* $p<0.05$, ** $p<0.01$, *** $p<0.001$

제 3 절 위계적 회귀분석

1. 감염 위험 인지

1.1. 감염 가능성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모형1에서는 혐오표현 노출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모형2에서는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모형3에서는 혐오표현 노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정보이용행태 특성도 추가하여 감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의 F값은 0.016($p=0.899$)으로 적합하지 않았고, 모형2의 F값은 4.036($p<0.001$), 모형3의 F값은 3.533($p<0.001$)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R^2 값은 모형1 = 0.000, 모형2 = 0.033, 모형3 = 0.036이었으며, 모형2의 R^2 F 변화량($F=4.610$)의 유의확률은 $p<0.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모형3의 R^2 F 변화량($F=1.503$)의 유의확률은 0.223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노출과 감염 가능성은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감염 가능성을 살펴본 모형2에서는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았고($\beta=-0.113$),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beta=0.125$).

혐오표현 노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함께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추가하여 감염 가능성을 살펴본 모형3에서도 모형2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였고($\beta=-0.122$),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았다($\beta=0.125$).

<표 6> 감염 가능성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협오표현 노출		0.004 (-0.092-0.105)	0.899	0.022 (-0.067-0.133)	0.513	0.018 (-0.073-1.128)	0.594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015 (-0.076-0.122)	0.655	0.020 (-0.068-0.131)	0.532	
		연령		-0.031 (-0.053-0.019)	0.349	-0.018 (-0.046-0.027)	0.610	
	사회 경제적 특성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58 (-0.009-0.188)	0.074	0.058 (-0.009-0.188)	0.075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교육 수준	대재이상		-0.113 (-0.071-0.030)	0.001**	-0.122 (-0.298 -- 0.084)	<.001***
		소득 수준			-0.026 (-0.071-0.030)	0.436	-0.026 (-0.071-0.030)	0.433
		고용형태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039 (-0.021-0.086)	0.232	0.040 (-0.020-0.087)	0.224	
	정치 성향			0.125 (0.022-0.068)	<.001**	*	0.125 (-0.022-0.068)	<.001***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획득 미디어 이용 정도	매스미디어				0 (reference)	
뉴미디어						0.059 (-0.013-0.195)	0.085	
						-0.004 (-0.059-0.052)	0.899	
F(p)			0.016(0.899)		4.036(<.001***)		3.533(<.001***)	
R ²			0.000		0.033		0.036	
adj.R ²			-0.001		0.025		0.026	

*p<.05, **p<.01, ***p<.001

1.2. 감염 심각성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모형1에서는 혐오표현 노출만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모형2에서는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모형3에서는 정보이용행태특성도 추가하여 감염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의 F값은 1.697($p=0.193$)으로 적합하지 않았고, 모형2의 F값은 6.306($p<0.001$), 모형3의 F값은 7.627($p<0.001$)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1 $R^2 = 0.002$, 모형2 $R^2 = 0.051$, 모형3 $R^2=0.075$ 이다. 모형1을 제외한 모형2의 R^2 F 변화량($F=6.954$)과 모형3의 R^2 F 변화량($F=12.30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혐오표현 노출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에서 혐오표현 노출은 감염 심각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감염 심각성을 살펴본 모형2에서는 혐오표현 노출이 감염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3$).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beta=0.019$),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beta=0.027$), 고용형태가 무직이 아닌 근로자일 경우($\beta=0.028$)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노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함께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추가하여 감염 심각성을 살펴본 모형3의 경우도 모형2와 마찬가지로 혐오표현 노출이 감염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3$).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beta=0.019$),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beta=0.026$), 고용형태가 무직이 아닌 근로자일 경우($\beta=0.028$)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달리 정치 성향도 유의하게 나왔는데,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12$). 정보이용행태 특성 중 미디어 이용 정도의 경우도 감염 심각성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감염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29$).

<표 7> 감염 심각성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혐오표현 노출		0.042 (-0.035-0.172)	0.193	0.053 (0.025-0.233)	0.015*	0.053 (0.001-0.208)	0.047*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052 (-0.015-0.190)	0.095	0.052 (-0.029-0.176)	0.159
		연령			0.019 (0.027-0.101)	<0.01***	0.019 (0.014-0.089)	0.008**
	사회 경제적 특성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52 (-0.182-0.022)	.124	0.052 (-0.168-0.034)	0.196
		교육 수준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대재이상		0.056 (-0.196-0.024)	.124	0.056 (-0.195-0.024)	0.125
		소득 수준			0.027 (-0.127 - -0.022)	.006**	0.026 (-0.135- -0.031)	0.002**
			고용형태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028 (-0.126- -0.015)	.013*	0.028 (-0.118- -0.008)	0.024*	
		정치 성향		0.012 (-0.022-0.046)	.074	0.012 (0.001-0.048)	0.038*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0 (reference)	
뉴미디어						0.054 (-0.108-0.105)	0.976	
미디어 이용 정도						0.029 (0.087-0.202)	<0.01***	
F(p)			1.697(0.193)		6.306(<0.001***)		7.627(<0.001***)	
R ²			0.020		0.051		0.075	
adj.R ²			0.001		0.043		0.065	

*p<.05, **p<.01, ***p<.001

2. 감염 위험 심리

2.1. 감염 두려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모형1에서는 혐오표현 노출만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모형2에서는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3에서는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추가하여 감염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의 F값은 5.821($p=0.016$), 모형2의 F값은 2.275($p=0.021$), 모형3의 F값은 2.452($p=0.007$)로 세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 모형1 $R^2 = 0.006$, 모형2 $R^2 = 0.019$, 모형3 $R^2=0.025$ 이며, 모형1의 R^2 F 변화량($F=5.821$, $p=0.016$)과 모형3의 R^2 F 변화량($F=3.119$, $p=0.04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모형2의 R^2 F 변화량($F=1.764$)은 유의하지 않았다.

혐오표현 노출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감염 가능성을 살펴본 모형2, 혐오표현 노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함께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추가하여 감염 두려움을 살펴본 모형3 모두에서 혐오표현 노출은 감염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 $\beta=0.078$, 모형2 $\beta=0.089$, 모형3 $\beta=0.081$). 즉,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 두려움이라는 심리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 감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를 살펴보면, 모형2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68$). 모형 3의 경우, 모형2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거주지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감염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65$). 또한 모델2와 동일하게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72$). 정보이용행태 특성 중 미디어 이용 정도도 감염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82$). 즉, 미디어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감염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혐오표현 노출		0.078 (3.298-3.475)	0.016*	0.089 (0.046-0.298)	0.008**	0.081 (0.031-0.285)	0.015*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049 (-0.030-0.220)	0.137	0.044 (-0.040-0.211)	0.183	
		연령		0.042 (-0.017-0.074)	0.214	0.030 (-0.026-0.067)	0.396	
	사회 경제적 특성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61 (-0.05-0.243)	0.061	0.065 (0.003-0.251)	0.045*
		교육 수준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대재이상		-0.016 (-0.164-0.102)	0.650	-0.015 (-0.164-0.105)	0.671
		소득 수준			-0.004 (-0.068-0.060)	0.899	-0.010 (-0.073-0.054)	0.771
			고용형태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006 (-0.061-0.074)	0.852	0.010 (-0.057-0.078)	0.756		
	정치 성향			0.068 (0.002-0.060)	0.036*	0.072 (0.004-0.062)	0.026*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0 (reference)	
뉴미디어						-0.005 (-0.141-0.121)	0.877	
미디어 이용 정도						0.082 (0.019-0.159)	0.013*	
F(p)			5.821(0.016*)		2.275(0.021*)		2.452(0.007**)	
R ²			0.006		0.019		0.025	
adj.R ²			0.005		0.011		0.015	

*p<.05, **p<.01, ***p<.001

2.2. 낙인 두려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서는 혐오표현 노출만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모형2에서는 혐오표현 노출 변수에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모형3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정보이용행태특성도 추가하여 낙인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의 F값은 6.226($p=0.013$), 모형3의 F값은 2.246($p=0.014$)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나, 모형2의 F값은 1.857($p=0.063$)로 적합하지 않았다. 모형1 $R^2 = 0.007$, 모형2 $R^2 = 0.016$, 모형3 $R^2=0.023$ 이며, 모형1의 R^2 F 변화량($F=6.226$, $p=0.013$)과 모형3의 R^2 F 변화량($F=3.760$, $p=0.02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모형2의 R^2 F 변화량($F=1.231$)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은 낙인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 $\beta =0.081$, 모형2 $\beta =0.084$, 모형3 $\beta =0.073$).

모형 2에서는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지만, 모형 3에서는 정보이용행태 특성 중 미디어 이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 낙인 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0.066$).

<표 9> 낙인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혐오표현 노출		0.081 (0.037-0.307)	0.013*	0.084 (0.041-0.318)	0.011*	0.073 (0.016-0.295)	0.029*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058 (-0.015-0.260)	0.080	.060 (-0.009-0.267)	0.067
		연령			0.030 (-0.027-0.072)	0.370	.036 (-0.024-0.078)	0.299
	사회 경제적 특성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19 (-0.178-0.095)	0.553	-0.016 (-0.170-0.102)	0.626
		교육 수준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대재이상		-0.015 (-0.179-0.114)	0.666	-0.025 (-0.202-0.094)	0.474
		소득 수준			0.060 (-0.007-0.134)	0.076	0.055 (-0.012-0.128)	0.104
			고용형태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020 (-0.097-0.051)	0.539	-0.016 (-0.092-0.056)	0.631	
		정치 성향		0.019 (-0.022-0.041)	0.563	0.024 (-0.020-0.044)	0.467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0 (reference)	
뉴미디어						0.067 (-0.001-0.287)	0.051	
미디어 이용 정도						0.066 (0.002-0.156)	0.045*	
F(p)			6.226(0.013*)		1.857(0.063)		2.246(0.014*)	
R ²			0.007		0.016		0.023	
adj.R ²			0.005		0.007		0.013	

*p<.05, **p<.01, ***p<.001

제 4 절 연령별 하위집단 분석

코로나19 혐오표현과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연령층에 따라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층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030 청년층은 총 300명, 4050대 중장년층은 383명, 6070대 이상 노년층은 269명이다.

연령별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모형1에는 혐오표현 노출만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모형2에서는 혐오표현 노출 변수에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모형3에서는 혐오표현 노출변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정보이용행태특성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종합적인 모형인 모형3의 결과만 표로 명시하였다.

1. 감염 위험 인지

1.1 감염 가능성

감염 가능성에 대한 연령별로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10>와 같다. 2030대 청년층의 모형3 F값은 1.328($p=0.214$), 4050대 중장년층의 모형3 F값은 1.804($p=0.058$), 6070대 이상 노년층의 모형3 F값은 1.424($p=0.178$)로 세 연령별 집단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R^2 F 변화량은 2030대 청년층=0.729, 4050대 중장년층=0.546, 6070대 이상 노년층=0.558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감염 가능성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등 모든 연령별 집단에서 혐오표현 노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교육 수준과 정치 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54$). 반면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52$).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감염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감염 심각성

감염 위험 인지 중 감염 심각성에 대한 연령별로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11>와 같다. 2030대 청년층의 모형3 F값은 5.126($p < 0.001$), 4050대 중장년층의 모형3 F값은 3.126($p < 0.001$), 6070대 이상 노년층의 모형3 F값은 1.469($p = 0.160$)로 세 연령별 집단 중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6070대 이상 노년층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R^2 F 변화량은 2030대 청년층=4.233($p = 0.015$), 4050대 중장년층=4.628($p = 0.010$), 6070대 이상 노년층=3.187($p = 0.043$)로 모두 유의하였다.

감염 심각성과 혐오표현 노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령집단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beta = 0.148$). 4050대 중장년층과 60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혐오표현 노출과 감염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감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2030대 청년층은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 감염 심각성을 더 높게 인지하였다($\beta = 0.184$). 또한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beta = -0.171$), 무직일 경우보다 근로자일 경우 감염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14$).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고용형태가 근로자일 경우 무직일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이 낮으며($\beta = -0.123$),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11$). 반면 정보를

매스미디어보다 뉴미디어에서 획득할 경우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36$).

60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 중 미디어 이용 정도가 감염 심각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감염 위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32$).

<표 10> 연령별 감염 가능성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협오표현 노출		0.048 (-0.103-0.249)	0.416	0.018 (-0.136-0.192)	0.734	0.002 (-0.191-0.198)	0.973	
통계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080 (-0.056-0.290)	0.185	-0.044 (-0.235-0.094)	0.399	0.036 (-0.137-0.252)	0.561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72 (-0.061-0.272)	0.213	0.061 (-0.063-0.259)	0.233	0.039 (-0.132-0.257)	0.528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사회 경제적 특성	교육 수준	대재이상	-0.084 (-0.328-0.054)	0.160	-0.154 (-0.420--0.072)	0.006**	-0.112 (-0.387-0.032)	0.097
		소득 수준		-0.008 (-0.093-0.081)	0.890	-0.013 (-0.093-0.073)	0.806	-0.072 (-0.165-0.049)	0.287
	고용형태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119 (-0.003-0.183)	0.057	0.026 (-0.069-0.115)	0.621	-0.022 (-0.127-0.088)	0.723	
	정치 성향		0.100 (-0.007-0.087)	0.091	0.152 (0.020-0.101)	0.003**	0.120 (0.000-0.074)	0.051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매스미디어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미디어	뉴미디어	0.066 (-0.080-0.293)	0.262	0.053 (-0.080-0.250)	0.311	0.043 (-0.133-0.276)	0.490
미디어 이용 정도			0.033 (-0.069-0.122)	0.585	-0.010 (-0.098-0.080)	0.843	-0.051 (-0.164-0.067)	0.413	
F(p)			1.328(0.214)		1.804(0.058)		1.424(0.178)		
R ²			0.044		0.046		0.047		
adj.R ²			0.011		0.021		0.014		

*p<.05, **p<.01, ***p<.001

<표 11> 연령별 감염 심각성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혐오표현 노출		0.148 (0.070-0.471)	0.008**	0.003 (-0.158-0.168)	0.956	0.043 (-0.113-0.236)	0.485	
통계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184 (0.127-0.522)	0.001**	-0.049 (-0.243-0.084)	0.340	0.032 (-0.128-0.221)	0.604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99 (-0.031-0.381)	0.095	0.039 (-0.099-0.226)	0.446	0.083 (-0.055-0.293)	0.181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교육 수준	대재이상	-0.171 (-0.492- - 0.112)	0.002**	0.002 (-0.157-0.163)	0.973	-0.109 (-0.343-0.033)	0.105	
		소득 수준	-0.060 (-0.202- - 0.003)	0.287	-0.038 (-0.157-0.163)	0.481	-0.034 (-0.120-0.071)	0.613	
	사회 경제적 특성	고용 형태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114 (-0.154- 0.058)	0.044*	-0.123 (-0.189- -0.007)	0.021*	-0.045 (-0.132-0.061)	0.467	
	정치 성향		-0.052 (-0.018- 0.089)	0.375	-0.111 (0.015-0.095)	0.035*	-0.026 (-0.040-0.026)	0.675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뉴미디어	0.072 (-0.342-0.084)	0.198	0.136 (-0.158-0.170)	0.008**	0.081 (-0.063-0.303)	0.198
미디어 이용 정도			-0.066 (0.031-0.250)	0.235	0.004 (0.048-0.226)	0.942	0.132 (0.008-0.215)	0.034*	
F(p)			5.126(<0.001***)		3.126(<0.001***)		1.469(0.160)		
R ²			0.151		0.078		0.049		
adj.R ²			0.121		0.053		0.016		

*p<.05, **p<.01, ***p<.001

2. 감염 위험 심리

2.1 감염 두려움

감염 위험 심리 중 감염 두려움에 대한 연령별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2030대 청년층의 모형3 F값은 2.498($p=0.009$), 4050대 중장년층의 모형3 F값은 2.206($p=0.021$), 6070대 이상 노년층의 모형3 F값은 1.123($p=0.347$)으로 세 연령별 집단 중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6070대 이상 노년층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R^2 F 변화량은 2030대 청년층=0.016, 4050대 중장년층=0.013, 6070대 이상 노년층=0.554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감염 두려움과 혐오표현 노출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등 세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집단별로 감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감염 두려움이 높으며($\beta=0.181$),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33$).

4050대 중장년층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감염 두려움이 높았으며($\beta=0.116$),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였다($\beta=0.137$). 또한 2030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1$).

60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 중 감염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낙인 두려움

감염 위험 심리 중 낙인 두려움에 대한 연령별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13>와 같다. 2030대 청년층의 모형3 F값은

3.033($p=0.002$), 4050대 중장년층의 모형3 F값은 0.730($p=0.681$), 6070대 이상 노년층의 모형3 F값은 1.510($p=0.144$)으로 세 연령별 집단 중 2030대 청년층의 모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R^2 F 변화량은 2030대 청년층=1.630, 4050대 중장년층=0.393, 6070대 이상 노년층=1.004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등 세 집단에서 모두에서 낙인 두려움과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집단별로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낙인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고($\beta=0.197$),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낙인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47$).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 중 낙인 두려움과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6070대 이상 노년층은 무직일 경우보다 근로자일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66$).

<표 12> 연령별 감염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협오표현 노출		0.095 (-0.039-0.437)	0.100	0.062 (-0.077-0.314)	0.233	0.082 (-0.077-0.386)	0.191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181 (0.131-0.602)	0.002**	-0.035 (-0.264-0.130)	0.507	-0.021 (-0.271-0.192)	0.739	
	사회 경제적 특성	거주지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45 (-0.135-0.319)	0.426	0.116 (0.029-0.415)	0.025*	0.026 (-0.183-0.280)	0.680
		교육 수준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대재이상	0.019 (-0.216-0.302)	0.746	0.024 (-0.162-0.256)	0.658	-0.129 (-0.492-0.006)	0.056
		소득 수준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근로자	0.036 (-0.081-0.158)	0.530	0.038 (-0.068-0.147)	0.468	-0.087 (-0.220-0.037)	0.161
	고용형태	정치 성향	0.051 (-0.035-0.092)	0.380	0.137 (0.017-0.114)	0.008**	0.008 (-0.041-0.047)	0.891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뉴미디어	0.007 (-0.238-0.269)	0.903	-0.020 (-0.237-0.159)	0.698	-0.004 (-0.250-0.236)	0.955
		미디어 이용 정도		0.133 (0.019-0.280)	0.025*	0.111 (0.011-0.224)	0.031*	-0.065 (-0.210-0.064)	0.295
F(p)			2.498(0.009**)		2.206(0.021*)		1.123(0.347)		
R ²			0.072		0.051		0.038		
adj.R ²			0.043		0.028		0.004		

*p<.05, **p<.01, ***p<.001

<표 13> 연령별 낙인 두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분류	변수	수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독립 변수	혐오표현 노출		0.051 (-0.143-0.376)	0.378	0.097 (-0.014-0.437)	0.066	0.056 (-0.129-0.350)	0.364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여성	0.197 (0.180-0.693)	<0.001***	0.010 (-0.206-0.250)	0.850	-0.047 (-0.331-0.148)	0.454	
	거주지	비수도권	비수도권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수도권	-0.022 (-0.297-0.198)	0.694	0.004 (-0.215-0.231)	0.943	-0.034 (-0.306-0.172)	0.581
		교육 수준	고졸이하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대재이상	-0.009 (-0.303-0.261)	0.883	-0.015 (-0.274-0.209)	0.791	-0.064 (-0.383-0.133)	0.340
	사회 경제적 특성	소득 수준	무직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고용형태	근로자	0.053 (-0.069-0.192)	0.356	0.007 (-0.116-0.133)	0.893	-0.166 (-0.314-0.049)
		정치 성향		0.041 (-0.044-0.094)	0.477	0.045 (-0.032-0.080)	0.396	-0.005 (-0.047-0.043)	0.932
	정보 이용 행태 특성	정보 획득 미디어	매스미디어	0 (reference)		0 (reference)		0 (reference)	
			뉴미디어	0.080 (-0.082-0.470)	0.167	0.031 (-0.160-0.297)	0.554	0.070 (-0.109-0.393)	0.267
		미디어 이용 정도		0.075 (-0.049-0.235)	0.199	0.036 (-0.080-0.167)	0.490	0.052 (-0.081-0.203)	0.401
	F(p)			3.033(0.002**)		0.730(0.681)		1.510(0.144)	
R ²			0.086		0.017		0.050		
adj.R ²			0.058		-0.006		0.017		

*p<.05, **p<.01, ***p<.001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는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에 대한 경험은 연령($p < 0.001$), 거주지($p < 0.05$), 교육 수준($p < 0.001$), 소득 수준($p < 0.05$), 고용형태($p < 0.01$), 정치 성향($p < 0.01$), 정보 획득 미디어($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미디어이용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혐오표현 노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을 많이 접하며, 성별은 혐오표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ello et al., 2017; Pacheco, 2018). 하지만 인구통계학 변수와 혐오표현 노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령이 높을수록 혐오표현 노출 경험이 증가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Hawdon et al, 2017).

또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 경우 혐오표현에 더 많이 접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guchi, 2013; Wasilewski, 2019). 반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여성의 혐오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박건우 & 이정읍, 2019).

한편,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미디어의 이용 정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혐오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ello et al., 2017; Hawdon et al., 2019; Oksanen et al.,

2014).

두 번째, 코로나19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경험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과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t=-2.449$)과 낙인 두려움($t=-2.238$)에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 두려움은 3.54점이었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3.38점으로 혐오표현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낙인 두려움의 점수도 혐오표현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3.58점으로 경험이 없는 집단(3.43점)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세 번째,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정보이용행태 특성(정보획득미디어, 미디어이용 정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염 가능성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감염 심각성은 혐오표현 노출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감염 심각성을 살펴본 모형2와 혐오표현 노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함께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추가하여 감염 심각성을 살펴본 모형3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 $\beta=0.053$, 모형3 $\beta=0.053$). 즉,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가능성의 경우, 모형2와 모형3 모두에서 교육 수준과 정치 성향이 감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감염 가능성이 낮았고(모형2 $\beta=-0.113$, 모형3 $\beta=-0.122$),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모형2 $\beta=0.125$, 모형3 $\beta=0.125$).

감염 심각성은 연령이 많을수록(모형2 $\beta=0.019$, 모형3 $\beta=0.019$),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모형2 $\beta=0.027$, 모형3 $\beta=0.026$), 근로자일 경우 무직일 경우보다(모형2 $\beta=0.028$, 모형3 $\beta=0.028$)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오표현 노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 모두를 적용한 모형3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beta=0.012$),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beta=0.029$) 감염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통제변수를 적용하여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염 두려움의 경우 세 가지의 모든 위계적 회귀모형에서 혐오표현 노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혐오표현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모형1 $\beta=0.078$, 모형2 $\beta=0.089$, 모형3 $\beta=0.081$).

혐오표현 노출과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에 따라 감염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68$). 또한 정보이용미디어와 미디어 이용 정도를 포함하는 정보이용행태 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감염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beta=0.065$),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13$).

감염 위험 심리 변수 중 낙인 두려움은 감염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모든 위계적 회귀모형에서 혐오표현 노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인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모형1 $\beta=0.081$, 모형2 $\beta=0.084$, 모형3 $\beta=0.073$).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는 정보이용행태 특성 중 미디어 이용 정도로 나타났다($\beta=0.066$). 즉, 미디어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 낙인 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감염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 노출이 있는 경우 두려움에 대한 수치가 증가하였으며, 혐오표현에 담긴 낙인에 대해 인지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두려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ver et al., 2020; Regmi, 2022; Fredriksen-Goldsen et al., 2014).

다섯째,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혐오표현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집단은 총 3개로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의 경우, 2030대 집단에서는 감염 심각성만이 코로나19 혐오표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0.148$). 즉, 2030 대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감염 심각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중장년층과 60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혐오표현 노출과 감염 가능성, 감염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집단별로 감염 위험 인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감염 심각성이 높았고($\beta=0.184$),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beta=-0.171$), 고용형태가 근로자일 경우 무직일 경우보다($\beta=-0.114$) 감염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54$). 또한 고용형태가 근로자일 경우 무직일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이 낮았다($\beta=-0.123$).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은 증가하지만($\beta=0.152$), 감염 심각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1$). 또한 정보를 뉴미디어에서 획득할 경우 매스미디어에서 획득하는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36$). 감염 위험 심리 변수인 감염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의 경우,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70대 이상 노년층 등 세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집단별로 감염 위험 심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30대 청년층은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감염 두려움($\beta=0.181$)과 낙인 두려움($\beta=0.19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beta=0.133$)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낙인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47$).

4050대 중장년층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감염 두려움이 높았으며($\beta=0.116$),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beta=0.137$),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beta=0.011$)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이용행태 특성 변수 중 감염 두려움과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으나, 고용형태가 낙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직일 경우보다 근로자일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66$).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한국 코로나19 기간 중 2020년 5월에 수집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즉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전 기간에 발생한 혐오표현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혐오 및 혐오표현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은 초기였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언급도 초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거주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형태, 정치 성향), 정보이용행태 특성(정보획득 미디어, 미디어 이용 정도) 변수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상태나 코로나19 경험과 같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노출’ 변수를 경험의 여부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세부 유형에 따른 노출 정도를 비교하거나, 인지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부적인 위기 소통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종류별 노출 정도와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유형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혐오표현의 세부 유형별로 노출 경험이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은 향후 대응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감염병 위기 소통 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 3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노출이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령별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청년층(2030대), 중장년층(4050대), 노년층(6070대 이상) 간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혐오표현의 노출은 감염 위험 인지 중 감염 심각성과 감염 위험 심리 중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 심각성,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적 영향을 확인하고, 지나친 감정축발을 예방하는 적절한 대응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당국이나 시도에서 발간한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혐오표현 노출이 개인의 인지와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일부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학술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2020; 국가인권위원회, 2020). 그러나 사실상 미디어 이용 정도와 유형에 따른 혐오표현의 인지적 및 심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안이나 예방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의 노출이 개인의 인지와 심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Leets, 2002; 김민정, 2014; 박해영, 2015; 이승현, 2016; Soral et al., 2018; Leiserowitz, 2006; Karg et al., 2019; Mossie & Wang, 2020). 특히 본 연구에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우, 개인은 인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학제적인 논의를 통하여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혐오표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 소통을 위해 예방의 차원에서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감염 위험에 인지적 및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 전략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령별로 코로나19 혐오표현과 감염 위험 인지와 심리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4050대 중년층과 6070대 이상 노년층은 혐오표현 노출에 따라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 위험 인지 변수인 감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면 혐오표현에 대해 인지적으로 둔감해지고, 무의식적으로 불안, 짜증, 분노와 같은 심리적 영향 등을 받는다(Bilewicz and Soral, 2020; Das et al., 2020). 개인의 인지와 심리 수준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혐오표현 노출에 취약한 집단의 사용매체, 연령 등을 고려한 혐오 예방 캠페인 등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빈번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기 소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혐오표현 노출 정도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차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염병 위기발생 시 촉발될 수 있는 개인의 인지 및 심리의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한 세부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감염 위험 인지 중 감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수준과 정치 성향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감염 가능성이 낮았고,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감염 심각성은 연령,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근로형태, 미디어이용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근로형태가 무직인 경우보다 근로자일 경우,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감염 위험 심리의 경우, 감염 두려움은 정치 성향, 거주지역, 미디어이용 정도에 따라 영향이 나타났다.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감염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 두려움은 미디어 이용 정도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낙인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감염 위험 인지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30대 청년층 중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감염 심각성과 감염 두려움, 낙인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근로자일 경우 무직보다 감염 심각성이 낮았다. 또한 2030대 청년층은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감염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낙인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중장년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일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았으며, 근로자일 경우 무직보다 감염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매스미디어보다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을 경우 감염 심각성이 높았으며,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감염 두려움이 높았다. 또한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감염 심각성은 낮았지만, 감염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6070대 이상 노년층은 무직일 경우보다 근로자일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심리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보이용행태 변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령에 따라서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 위기 소통 시 감염 위험 인식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과하게 촉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Aarøe, L., Osmundsen, M., & Petersen, M. B. (2016). Distrust as a disease avoidance strategy: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gust sensitivity regulate generalized social trust. *Frontiers in psychology*, 7, 1038.
- Adams, J. (1999). *The management of risk and uncertainty*. Adam Smith Institute, London. Accessed online at: <http://www.adamsmith.org>.
- Adams, J. G., & Walls, R. M. (2020). Supporting the health care workforce during the COVID-19 global epidemic. *Jama*, 323(15), 1439-1440.
- Agwuocha, U. A. (2021). COVID-19 induced hate speech and Austin's speech act theory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peace building. *Journal of African Stud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Allen, J. M., & Norris, G. H. (2011). Is genocide different—dealing with hate speech in a post-genocide society. *J. Int'l L & Int'l Rel.*, 7, 146.
- Banks, J.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 limits of legisl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1), 1-13.
- Bavel, J. J. V., Baicker, K., Boggio, P. S., Capraro, V., Cichocka, A., Cikara, M., ... & Willer, R.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5), 460-471.
- Bhanot, D., Singh, T., Verma, S. K., & Sharad, S. (2021). Stigma and discrimination during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577018.
- Biddle, S. J., & Mutrie, N. (2007). *Psychology of physical activity: Determinants, well-being and interventions*. Routledge.
- Bilewicz, M., & Soral, W. (2020). Hate speech epidemic. The dynamic effects of derogatory language on intergroup relations and political radicalization. *Political Psychology*, 41, 3-33.

- Brennen, J. S., Simon, F. M., Howard, P. N., & Nielsen, R. K. (2020). Types, sources, and claims of COVID-19 mis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 Bridgman, A., Merkley, E., Loewen, P. J., Owen, T., Ruths, D., Teichmann, L., & Zhilin, O. (2020).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VID-19 misperceptions: Understanding the role of news and social media. *Harvard Kennedy School Misinformation Review*, 1(3).
- Brown, Alexander (2017). "What is hate speech? Part 2: Family resemblances", *Law and Philosophy*, 36.5, pp. 564–565
- Brown, R., Coventry, L., & Pepper, G. (2021). Information seeking, personal experienc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OVID-19 risk perceptions: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inequalities. *Journal of Risk Research*, 24(3–4), 506–520.
- Buturoiu, D. R., & Corbu, N. (2020). Exposure to Hate Speech in the Digital Age. Effects on Stereotypes About Roma People. *Journal of Media Research*, 13(2).
- Casero-Ripollés, Andreu (2020). "Impact of Covid-19 on the media system. Communicative and democratic consequences of news consumption during the outbreak". *El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29(2), e290223.
- Castaño-Pulgarín, S. A., Suárez-Betancur, N., Vega, L. M. T., & López, H. M. H. (2021). Internet, social media and online hate speech.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8, 101608.
- Chapman, H. A., Johannes, K., Poppenk, J. L., Moscovitch, M., & Anderson, A. K. (2013). Evidence for the differential salience of disgust and fear in episodic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4), 1100.
- Chisty, M. A., Islam, M. A., Munia, A. T., Rahman, M. M., Rahman, N. N., & Mohima, M. (2021). Risk perception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during emergency: An exploratory study on COVID-19 pandemic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65, 102580.

- Choi, S. (2021). "People look at me like I AM the virus": Fear, stigma, and discrimin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Qualitative Social Work*, 20(1-2), 233-239.
- Chung, R. Y. N., & Li, M. M. (2020). Anti-Chinese sentiment during the 2019-nCoV outbreak. *The Lancet*, 395(10225), 686-687.
- Coombs, W. T. (2010). Parameters for crisis communication. *The handbook of crisis communication*, 17-53.
- Costello, M., & Hawdon, J. (2018). Who are the online extremists among u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networking, and online experiences of those who produce online hate materials. *Violence and gender*, 5(1), 55-60.
- Costello, M., & Hawdon, J. (2020). Hate speech in online spaces. *The Palgrave handbook of international cybercrime and cyberdeviance*, 1397-1416.
- Costello, M., Hawdon, J., & Ratliff, T. N. (2017). Confronting online extremism: The effect of self-help, collective efficacy, and guardianship on being a target for hate speech.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5(5), 587-605.
- Croucher, S. M., Nguyen, T., & Rahmani, D. (2020). Prejudice toward Asian American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e in the United States. *Frontiers in Communication*, 5, 39.
- CSUSD.(2021). Response to the Escalating Anti-Asian Hate in the United States.
- Dai, J. M., Collins, S., Yu, H. Z., & Fu, H. (2008). Combining job stress models in predicting burnout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a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in Shanghai.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785-790.
- Das, M., Mathew, B., Saha, P., Goyal, P., & Mukherjee, A. (2020). Hate speech in online social media. *ACM SIGWEB Newsletter*, 2020(Autumn), 1-8.
- Dryhurst, S., Schneider, C. R., Kerr, J., Freeman, A. L., Recchia, G., Van Der Bles, A. M., ... & Van Der Linden, S. (2020). Risk perceptions of COVID-19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isk*

- research, 23(7–8), 994–1006.
- Fan, L., Yu, H., & Yin, Z. (2020). Stigmatization in social media: Documenting and analyzing hate speech for COVID19 on Twitter.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1), e313.
- Fernandez, K. (2020). Three waves of hate speech spreading faster than the pandemic in Malaysia: An analyses of outgroup populist narratives and hate speech during the COVID–19. *Geografia*, 16(4).
- Fredriksen–Goldsen, K. I., Cook–Daniels, L., Kim, H. J., Erosheva, E. A., Emlet, C. A., Hoy–Ellis, C. P., ... & Muraco, A. (2014).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ransgender older adults: An at–risk and underserved population. *The Gerontologist*, 54(3), 488–500.
- Gagliardone, I., Gal, D., Alves, T., & Martinez, G. (2015).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Publishing.
- Garfin, D. R., Thompson, R. R., & Wong-Parodi, G. (2022). Media exposure, threat processing, and mitigation behaviors in Gulf Coast residents facing the co-occurring threats of COVID-19 and hurricanes. *Risk analysis*.
- Gerhold, L. (2020). COVID–19: risk perception and coping strategies.
- Goffman, E. (1963). *Embarrassment and social organization*.
- Gover, A. R., Harper, S. B., & Langton, L. (2020). Anti–Asian hate cri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ploring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647–667.
- Hassan, G., Rabah, J., Madriaza, P., Brouillette, Alarie, S., Borokhovski, E., Pickup, D., ... & Danis, E. (2022). PROTOCOL: Hate online and in traditional media: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for associations or impacts on individuals, audiences, and communities.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8(2), e1245.
- Hawdon, J., Oksanen, A., & Räsänen, P. (2014). Victims of Hate Groups: American Youth’s Exposure to Online Hate Speech. 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group violence: From*

- bullies to terrorists (pp. 165–182).
- Hawdon, J., Oksanen, A., & Rsnen, P. (2017). Exposure to online hate in four nations: A cross-national consideration. *Deviant behavior*, 38(3), 254–266.
- He, B., Ziems, C., Soni, S., Ramakrishnan, N., Yang, D., & Kumar, S. (2021, November). Racism is a virus: Anti-Asian hate and counterspeech in social media during the COVID-19 crisis. In *Proceedings of the 2021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works Analysis and Mining* (pp. 90–94).
- Hyland-Wood, B., Gardner, J., Leask, J., & Ecker, U. K. (2021). Toward effective government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he era of COVID-19.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8(1).
- Jeong, Y., & Jung, M. J. (2016).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rthopaedic Nursing*, 35(5), 338–341.
- Kansok-Dusche, J., Ballaschk, C., Krause, N., Zeißig, A., Seemann-Herz, L., Wachs, S., & Bilz, L. (2022). A systematic review on hate speec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definitions, prevalence, and overlap with related phenomena. *Trauma, Violence, & Abuse*, 15248380221108070.
- Karg, S. T., Wiener-Blotner, A., & Schnall, S. (2019). Disgust sensitivity is associated with heightened risk percep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22(5), 627–642.
- Keipi, T., Näsi, M., Oksanen, A., & Räsänen, P. (2016). *Online hate and harmful content: Cross-national perspectives* (p. 154). Taylor & Francis.
- Kim, A. W., Nyengerai, T., & Mendenhall, E. (2022). Evaluating the mental health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Perceived risk of COVID-19 infection and childhood trauma predict adult depressive symptoms in urban South Africa. *Psychological medicine*, 52(8), 1587–1599.
- Kim, J. Y., & Kesari, A. (2021). *Misinformation and hate speech: The*

- case of anti-Asian hate spee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Online Trust and Safety*, 1(1).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3.
- Lang, A., Dhillon, K., & Dong, Q. (1995). The effects of emotional arousal and valence on television viewers' cognitive capacity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9(3), 313-327.
- Lang, A., Newhagen, J., & Reeves, B. (1996). Negative video as structure: Emotion, attention, capacity,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0(4), 460-477.
- Lautenschlager, G. J., & Mendoza, J. L. (1986). A step-dow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xamining hypotheses about test bias in predic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0(2), 133-139.
- Leets, L. (2002). Experiencing hate speech: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anti-semitism and antigay speech. *Journal of social issues*, 58(2), 341-361.
-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1-2), 45-72.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 Lister, M. (2009). *New media: A critical introduction*. Taylor & Francis.
- Lister, M., Dovey, J., Giddings, S., Grant, I., & Kelly, K. (2008). *New media: A critical introduction*. Routledge.
- Merklejn, I., & Wiślicki, J. (2020). Hate speech and the polarization of Japanese national newspaper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23(2), 259-279.
- Miller, A., & Leshner, G. (2007). How viewers process live, breaking, and emotional television news. *Media Psychology*, 10(1), 23-40.
- Mossie, Z., & Wang, J. H. (2020). Vulnerable community

- identification using hate speech detection on social media.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7(3), 102087.
- Mullen, B., & Smyth, J. M. (2004). Immigrant suicide rates as a function of ethnophobias: Hate speech predicts death. *Psychosomatic Medicine*, 66(3), 343–348.
- Müller, K., & Schwarz, C. (2021). Fanning the flames of hate: Social media and hate crim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9(4), 2131–2167.
- Murray, D. R., & Schaller, M. (2016). The behavioral immune system: Implications for social cognition,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influenc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3, pp. 75–129). Academic Press.
- Nairn, R., Pega, F., McCreanor, T., Rankine, J., & Barnes, A. (2006). Media, racism and public health psycholog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183–196.
- Navarrete, C. D., & Fessler, D. M. (2006). Disease avoidance and ethnocentrism: The effects of disease vulnerability and disgust sensitivity on intergroup attitude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7(4), 270–282.
- Noriega, C. A., & Iribarren, F. J. (2012). Social Networks for Hate Speech (Vol. 2, pp. 1–31). CSRC Working paper.
- Nussbaum, M. C. (2015). Transitional anger.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1), 41–56.
- Oaten, M., Stevenson, R. J., & Case, T. I. (2009). Disgust as a disease–avoidance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35(2), 303.
- Oksanen, A., Hawdon, J., Holkeri, E., Näsi, M., & Räsänen, P. (2014). Exposure to online hate among young social media users. In *Soul of society: A focus on the lives of children & youth* (Vol. 18, pp. 253–273).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Orellana, C. I. (2023). Health workers as hate crimes targets during COVID–19 outbreak in the Americas. *Revista de Salud Pública*, 22, 253–257.
- Pacheco, E., & Melhuish, N. (2018). Online hate speech: a survey on

- personal experiences and exposure among adult New Zealanders. Available at SSRN 3272148.
- Pasupa, K., Karnbanjob, W., & Aksornsiri, M. (2022, June). Hate Speech Detection in Thai Social Media with Ordinal–Imbalanced Text Classification. In 2022 19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JCSSE) (pp. 1–6). IEEE.
- Pate, U. A., & Ibrahim, A. M. (2020). Fake News, Hate Speech and Nigeria's Struggle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A Conceptual Review. *Handbook of research on politics in the computer age*, 89–112.
- Pick, Y. C., & Carl, Y. (2010). Mobile strategi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Public Communication. Available: www.american.edu/soc/communication/upload.
- Pluta, A., Mazurek, J., Wojciechowski, J., Wolak, T., Soral, W., & Bilewicz, M. (2023). Exposure to hate speech deteriorates neurocognitive mechanisms of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pain. *Scientific Reports*, 13(1), 4127.
- Regmi, P. R., Dhakal Adhikari, S., Aryal, N., Wasti, S. P., & van Teijlingen, E. (2022). Fear, Stigma and Othering: The Impact of COVID–19 Rumours on Returnee Migrants and Muslim Populations of Nep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5), 8986.
- Reichelmann, A., Hawdon, J., Costello, M., Ryan, J., Blaya, C., Llorent, V., ... & Zych, I. (2021). Hate knows no boundaries: Online hate in six nations. *Deviant Behavior*, 42(9), 1100–1111.
- Rex.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2005, 이현숙.김수진.전수현 공역, 2020,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Roberto, K. J., Johnson, A. F., & Rauhaus, B. M. (2020). Stigmatization and prejudi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42(3), 364–378.
- Rosenfeld, M. (2002).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 comparative analysis. *Cardozo L. Rev.*, 24, 1523.
- Röttger, P., Vidgen, B., Nguyen, D., Waseem, Z., Margetts, H., & Pierrehumbert, J. B. (2020). HateCheck: Functional tests for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arXiv preprint arXiv:2012.15606.
- Rozin, P., & Fallon, A. (1980). The psychological categorization of foods and non-foods: A preliminary taxonomy of food rejections. *Appetite*, 1(3), 193–201.
- Rozin, P., & Fallon, A. E. (1987). A perspective on disgust. *Psychological review*, 94(1), 23.
- Savimäki, T., Kaakinen, M., Räsänen, P., & Oksanen, A. (2020). Disquieted by online hate: Negative experiences of Finnis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26, 23–37.
- Scheff, T. J. (1966). Users and non-users of a student psychiatric clinic.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r*, 114–121.
- Schmid, U. K., Kümpel, A. S., & Rieger, D. (2022). How social media users perceive different forms of online hate speech: A qualitative multi-method study. *New Media & Society*, 14614448221091185.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4799), 280–285.
- Somerville, K. (2011). Violence, hate speech and inflammatory broadcasting in Kenya: The problems of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Ecquid Novi: African Journalism Studies*, 32(1), 82–101.
- Soral, W., Bilewicz, M., & Winiewski, M. (2018). Exposure to hate speech increases prejudice through desensitization. *Aggressive behavior*, 44(2), 136–146.
- Staub, E. (2005).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hate, with notes on prevention.
- Stechemesser, A., Wenz, L., & Levermann, A. (2020). Corona crisis fuels racially profiled hate in social media networks. *EClinicalMedicine*, 23.
- Stevens, A. J., Ray, A. M., Thirunavukarasu, A., Johnson, E., Jones,

- L., Miller, A., & Elston, J. W. (2021). The experience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 Eng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rapid health needs assessment. *Public Health in Practice*, 2, 100192.
- Suedfeld, P., & Tetlock, P. (1977). Integrative complexity of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1), 169–184.
- Teo, M., Goonetilleke, A., Ahankoob, A., Deilami, K., & Lawie, M. (2018). Disaster awarenes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among residents from low socio-economic background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31, 1121–1131.
- Torres, C., Ogbu-Nwobodo, L., Alsan, M., Stanford, F. C., Banerjee, A., Breza, E., ... & COVID-19 Working Group. (2021). Effect of physician-delivered COVID-19 public health messages and messages acknowledging racial inequity on Black and White adults'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COVID-19: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Network Open*, 4(7), e2117115–e2117115.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2019. 검색일: 2023.4.29.
- Uyheng, J., & Carley, K. M. (2020). Bots and online hat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as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Journal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3, 445–468.
- Vachuska, K. F. (2020). Initial effect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racial prejudice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Google trends. *SocArXiv*, A.
- Waqas, A., Salminen, J., Jung, S. G., Almerakhi, H., & Jansen, B. J. (2019). Mapping online hate: A scientometric analysis on research trends and hotspots in research on online hate. *PLoS one*, 14(9), e0222194.
- Weber, M., Viehmann, C., Ziegele, M., & Schemer, C. (2020). Online hate does not stay online—How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mediate the effect of civil negativity and hate in user comments

- on prosocial behavio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4, 106192.
- Wu, X. K., Zhao, T. F., Lu, L., & Chen, W. N. (2022). Predicting the hate: A Gstm model based on Covid-19 hate speech dataset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9(4), 102998.
- Zhang, J., Lu, H., Zeng, H., Zhang, S., Du, Q., Jiang, T., & Du, B. (2020). The differential psychological distress of populations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7, 49.
- Zhang, L., Li, H., & Chen, K. (2020, March).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y: reflection on the COVID-19 (2019-nCoV) outbreak in Wuhan, China. In *Healthcare* (Vol. 8, No. 1, p. 64). MDPI.
- Ziems, C., He, B., Soni, S., & Kumar, S. (2020). Racism is a virus: Anti-asian hate and counterhate in social media during the covid-19 crisi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고동완, & 이창현. (2022). 코로나 19 발생 이후 중국 관련 신문 사설의 뉴스 프레임 연구:<조선일보>와 <한겨레>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1, 43-74.
- 국가인권위원회.(2019).혐오표현 리포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0).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김경희, 조연하, & 배진아. (2020).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출 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499-510.
- 김계수. (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민정. (2014). 일베식 “욕” 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법*, 13(2), 131-163.
- 김수경. (2021). 질병과 혐오: 메르스와 코로나 19 미디어 프레임 비교 연구. *인문사회* 21, 12(5), 1453-1466.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지수, & 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3), 45-

79.

- 김창숙, & 홍원식. (2021). 질병재난에 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과 귀인 특성 연구: 코로나 19 ‘대구 신천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0(3), 245-286.
- 김현, & 손병우. (2020). 여성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소설< 82 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83-111.
- 문정화, 김수진, & 성기욱. (2021). 코로나 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1), 285-307.
- 문화체육관광부.(2019).혐오표현 대응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 박건우, & 이정읍. (2019). 한국의 여성혐오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70-99.
- 박미숙, & 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73.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 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4), 40-85.
- 박진우. (2022). 혐오표현의 확산과 한국 언론: 뉴스 생태계 변화와 조직 내적 요인에 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문화와 정치, 9(2), 81-116.
- 박해영. (2015). 혐오표현 (Hate Speech) 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137-169.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청람.
- 서울특별시.(2020).서울시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 손달임. (2020). 코로나 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137-166.
- 오미영, 최진명, & 김학수. (2008).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1), 467-500.
- 유명순 외. (2020).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2차.
- 유명순 외. (2020).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5차.
- 이수연, & 이혜림. (2019).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의 성별 효과: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여성연구, 103(4), 115-145.
- 이승현. (2016).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44(4), 133-166.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195-227.
-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출 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 장소연, & 류웅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6(1), 45-85.
-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123-164.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185-219.
- 조민정, & 이신행. (2021). 코로나 19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자료기반 자동화 프레임 추출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1), 79-121.
- 조원광. (2021). 한국의 공중 보건 위기 초기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 19 초기 언론 보도에 대한 토픽 모델링. 정보사회와 미디어, 22(2), 25-50.
- 표시영, & 정지영. (2021).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 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언론학보, 65(2), 286-329.
- 홍성수 외, (2016).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홍성수 외.(2018).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어크로스.
- 홍주현 & 나은경.(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제60권 5호, 145~175쪽.

Abstract

The Effects of Exposure to Hate Speech related to COVID-19 on Cognition and Psychology of Infection Risk

Jiwon Moo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pandemic, people usually feel high anxiety since a new virus emerged and infection vastly increased in many communities. Therefore, they actively explore information to lower their anxiety, fear, and uncertainty by taking control. At the same time, information about infections grows rapidly and is delivered to people quick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many articles have explained the latter situation as a 'flood of inform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when people individually searched for information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they could not sufficiently check the facts and would be exposed to or accept wrong information readily.

This study focuses on 'Hate Speech'. Hate Speech means that any kind of communication in words, documents, or actions that attacks or uses derogatory or discriminatory language based on who they are in relation to a person or group, and it is known to effect negatively on people's cognition as well as psycholog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te speech surged through various media internationally with occurring great concerns about th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effects triggered by them.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m in depth from a health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xposure to hate speech related to COVID-19 on individual infection risk perception and psych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hate expression' used as a common word, not the exact concept of 'hate'.

To this e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mployment type, political tendency), and information use behavior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cquisition media, media usage)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used the COVID-19 5th National Perception Survey (You et al., 2020) conducted on 1,000 adults in Korea in May 2020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exposure to hate expressions related to COVID-19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mployment type, political orientation, and information acquisition media type.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psychological variables, fear on infection and stigma,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exposed to hate speech.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gnitive variables, possibility and severity of infec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cognitive variables, only the severity of infec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ith exposure to hate speech ($\beta = 0.053$).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exposure to hate speech.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were the level of educ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In

the case of educated in college or more,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was lower than that of high school graduation or lower ($\beta = -0.122$), and the more conservative the political tendency,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beta = 0.125$). In addition, the older the age ($\beta = 0.019$), the higher the income level ($\beta = 0.026$), the more conservative the political tendency ($\beta = 0.012$), and the higher the degree of media use ($\beta = 0.029$), the higher the severity of infection. Also, worker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severity of infection than those without work ($\beta = 0.028$).

When examining the effect on psychology, fear on infe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xposure to COVID-19-related hate speech ($\beta = 0.081$). In other words, when exposed to hate speech related to COVID-19, the fear of infection was higher than when they were not. Also, the more conservative the political tendency, the higher the fear of infection ($\beta = 0.068$). The case of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howed higher level of fear of infection than when living in the non-metropolitan area ($\beta = 0.065$). Besides, it was found that the fear of infection increased with the degree of media use ($\beta = 0.082$). Regarding psychological variables of infection risk, fear of stigma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exposure to hate speech ($\beta = 0.073$). Another variable that affects stigma fear is the degree of media use ($\beta = 0.066$).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exposure to hate speech and cognitiv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by age, groups were divided into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middle-aged people in their 40s and 50s, and elderly people in their 60s and 70s or older. Consequently, if young aged group in their 20s and 30s have been exposed to hate speech, the severity in infection was found to be high ($\beta = 0.148$). Middle-aged people in their 40s and 50s and older people in their 60s and 70s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result.

Factors affecting cognitive and psychological effects also

differed by age group.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omen have higher severity of infection ($\beta=0.184$), fear of infection ($\beta=0.181$), and fear of stigma ($\beta=0.197$) than men. In addition, in the case of educated in college or more, the severity of infection was lower than that of high school graduation or lower ($\beta=-0.171$), and in the case of workers, the severity of infection was lower than that of unemployment ($\beta=-0.114$).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feel much fear of infection as they use media ($\beta=0.133$).

Middle-aged people in their 40s and 50s had lower severity of infection than those who attended college or higher than those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beta=-0.154$), and those who were workers were less than unemployed ($\beta=-0.123$). When information was acquired from new media, the severity of infection was higher than that obtained from mass media ($\beta=0.136$). The more conservative their political tendency i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beta=0.152$), but the lower the severity of infection ($\beta=-0.111$). In additio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a higher fear of infection than living in the non-metropolitan area ($\beta=0.116$).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in their 60s and 70s or older felt less fear of stigma when they were workers than when they were unemployed ($\beta=-0.166$).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ffect of exposure to hate speech on infectious cognition and psycholog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when people experienced hate speech related to COVID-19 during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they had a higher severity of infection, fear of infection, and fear of stigma than if they did not. Managing excessively high risk awareness and psychology at an appropriate level in the face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s important in terms of promoting preventive ac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quarantin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infection risks caused by exposure to hate speech and to consider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prevent excessive emotional stimulation.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ate expression related to COVID-19 and the perception of infection risk and psychological impact was different for each age group.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communic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groups cognitively and psychologically vulnerable to infection risk due to exposure to hate speech and refin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a precautionary perspective.

Third,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detailed strategy that considers various factors of individual cognition and psychology that may be triggered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variables, socioeconomic variables, and information use behavior variables affect infection risk perception and psychology. When communicating with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communication will be needed to properly control the awareness of the risk of infection so that it does not increase too much and negative emotions are not triggered too much.

Keywords : exposure to hate speech, infectious risk cognition, infectious risk psycholog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ge group analysis, COVID-19

Student Number : 2021-22430